

서 원 우

〈본회사사·전동국대교수〉

지구환경문제와 관련 역사 이래 오랫동안 '가장 쓸모 없는 땅'으로 여겨져 왔던 습지와 개펄이 21세기 환경경제시대를 앞두고 '지구의 콩팥'으로 비유되며 재평가 되고 있다. 습지와 개펄의 경제적·문화적·경관적·환경생태학적 가치와 보존 방안 등을 기획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실)

지구생명의 신비-습지와 개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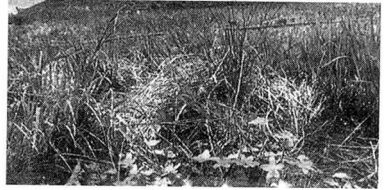
-습지의 환경 생태적 가치와 새로운 인식-

개발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습지와 개펄 등은 가장 쓸모없는 땅, 습기 많은 질퍽한 땅, 배수가 잘 안되는 얇은 땅으로 각종 오염 물질이 퇴적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매립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어 공장, 주택단지, 대단위 경작지로 국토의 모습을 바꾸는 개발용지로 변모하면서 가장 쓸모없는 땅에서 가장 쓸모있는 땅으로 부동산 증식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도 같은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 21세기 환경경제시대가 도래하고 경직기술은 감성기술로, 국가경제는 세계경제로, 단순사회는 다양한 사회로, 단순

조직은 망상조직으로 통합되는 시점에서 자연파괴의 개발경제를 현대화의 지표처럼 맹종하던 시각은 어느덧 자연환경 보호를 최대의 지표로 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이른바 환경 경제재표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선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습지와 개펄이 지구환경의 정화기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시각과 당위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생태학계에서는 1971년에 물새와 습생서식지로 국제적 중요성이 인식된 「이란」의 「람사조약」(Ramsa Site)이 채택되어 습지 보호를 목적으로한 국제적 협조를 위한 정부간의 협약이 발효되고 있다.



새로 발견된 습지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네델란드」에서는 곳곳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다목적 수익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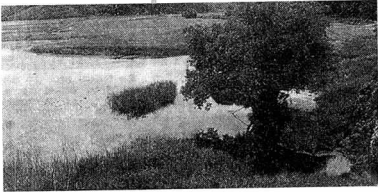
이제, 급세기적인 환경 재앙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92년 「브라질」의 「리우」 환경선언을 계기로 열대우림보존, 종다양성 증대를 비롯한 늪지대, 소택지, 이탄지대, 해안개펄 등의 보호방안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습지가 지구환경정화기능에서 얼마나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생태학에서는 마치 우리 인간의 신체 내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신장)”의 기능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습지는 땅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심오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울산 무제치늪

습지와 개펄은 과거 우리의 개발 경제시대에서 무자비하

게 파괴해서 얻은 물질경제의 가치 보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화급한 환경생태가 얼마나 귀중하고 절대 절명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또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말없이 보여줄 것이다. 또한 자연은 대범하고 관대하지만, 그 질서와 조화를 거역할 경우 인간에게는 무자비하고 엄청난 재앙으로 보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창녕 우포늪

앞으로 “습지와 개펄의 생태 보전을 위한 기획시리즈에서 습지의 경제적,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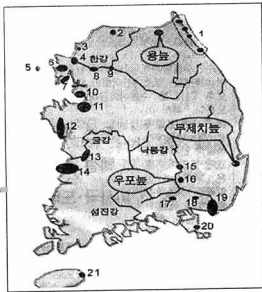
적, 경관적 그리고 환경생태학적 가치와 관련하여 습지의 개념 및 구분, 국내외의 보전상태, 사례연구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녹색환경부국(경제)시대에 대비하

는 과업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환경선진국의 대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복종할 뿐 명령할 수는 없다. 숭고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한다면, 고비용 저효율의 인위적 개선보다는 유지 관리가 가장 저렴한 자연의 구조와 기능에 순응하는 보전기법으로서 내일의 환경부국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과거의 잘못된 기능이 오늘의 구조를 표출하고, 오늘의 그 잘못된 구조가 또한 오늘의 기능을 수반하므로 다시 그 오늘의 잘못된 기능을 먼훗날에 더욱 그릇된 구조로 잉태시킨다는 생태학의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국제기구 등재 주요습지